

肉用業界

= 방역과 생산성제고
와 합리적경영이 최
대의 문제 =

신 정 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1. 머릿말

필자는 본지 78년도 1월호에서 올해의 전망에 대해서 집필하였다. 그 내용 중에서 예상이 적중한 사항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문제인 “전반기 경기가 틀림없는 호황일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으므로 생산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의 농담적인 요청을 많이 들었다. 이제 다시본지를 통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79년도의 경기를 전망하고자 한다. 사실 필자도 앞날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뒤 따른다. 필자 나름대로의 예상을 열거하겠지만, 독자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부분적인 의견으로서만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79년도는 어떠한 해(年)가 될 것인가? 새롭게 선출되어 출범하는 국회나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며, 현재 이란의 정치소요는 석유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활발해지고 있는 중공의 경제활동은 우리나라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태진전은 우리의 양계업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혀 무관하게 넘어갈 것인가?

병아리의 생산량과 사료공급의 상황이나 질병팽창의 여부등, 직접적인 요인으로서만 경기변동이 좌우될 것인가? 우선 78년도에 형성되었던 육계가격의 추세를 간추려 본다.

2. 78년도 분석

표1. 78年度 육계가격동향 (78.11.15현재)

구분 월별	시 세 (원/kg)	상 황 및 분 석	참 고 사 항	비 고
77. 12. 20	630	●중상 660원, 쉐미 750원	●12월 초순까지 계속되던 쉐미시세 700원代가 12월 15일 정부터 750원으로 상승되어 계속강세	●12. 20. 7부장관경질(장덕진氏 농수산부장관에임명) ●12. 22. 수출 100억불기념일, 날씨 추위짐. 수원 지방 영하 6℃
12. 23	650	●중상 700원. 부천지역일부 720원. 전반적으로 쉐미구입난 극심. 年末경기 대호황(특히 백화점, 제과점) ●12. 31. 정오뉴스, 백화점경기 대호황, 일반시장저조, 제사장상품, 육류판매활발 ●12. 31. 오후 3시 정부터 육계상인들의 대담요청 진화 빈발	●년말까지 시세변동 없음	●12. 25. X-Mas(일요일)성탄절 한파. 서울 영하 9.4℃ ●12. 29. 날씨풀림
78. 1. 3	750	●중상 780원	●쉐미시세 변동없음	●신정기간 동안 경인가도 중상대열 줄어음. 시장상인 2일간의 판매예정량 하루도 못되어 완전판매
1. 4	780	●중상 800원. 소비급증77. 12. 30 저녁부터 소비 불불기시작. 신정 3일간의 소비로 4일 현재 대담없음.	●산란노계 500원으로서속되어오다가 1. 3부터 600원으로 폭등	
1. 7	800			
1. 8	820	●시중돈육가격 급등. 77. 12월말 1,1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상승(신정 수요증가. 지방육서울반일 감소 원인) ●1. 9. 동아일보 "육류 파동" 톱기사. 1. 10. 조선일보 "육류수급대책" 톱기사	●쉐미 780원 ●시세급등 원인. ① 신정연휴소비 급증. ② 대체육류 부족 및 고시세 ③ 77년말까지 쉐미 과당 출하.	●농수산부 2월부터 돈육대일수출 중지결정 ●1. 5. 함박눈(날씨 출지아니함) ●1. 6(음 11. 27) 소한 ●1. 9 강추위내습 영하 6. 2℃ 1. 10. 서울영하 10℃
1. 12	820	●중상 850원 (부천지역), 천안지역 800원 ●1. 14. 부산지역 850원, 1. 19. 부산 900원. 광주 850원 ●1. 20 대설내림. 특란 27원	●쉐미 850원(시흥 일부지역 900원 출하)	●산란노계 600원, 육용종계노계 700원, 특란 24원, 대란 21원, 산란노계출하 많음(난가저조와 노계가격고시세 원인) ●1. 18. 대통령 년두기자회견 1. 19 대학입시. 1. 20 대한

□ 78年의 養鷄業界 結算과 79年 展望 □

구분 월별	시 세 (원/kg)	상 황 및 분 석	참 고 사 항	비 고
78. 1. 23	800	●중상 830원약세. 오늘부터 구정. 대목 영향으로매기부진. 부산 880원. 광주 900원. 각지역 약세.	●광주 900원 代약 10일간유지	●날씨 풀림. 중·고교 등 특금철
1. 30	750	●서울근교중상 800원 ●2.1. 일산지역 상승기미 약하게 엮보임(770원)		●특란 30원. 날씨 쌀쌀해 짐. ●2.1. 서울 영하 16°C ●2.4. 입춘, 날씨 풀림 ●2.7 구정
2. 7	부천지역 820	●2월초순경 병아리 구 입 의 최대격난기, 불량병아 리 난무, 고발, 진정사태		●구정경기는 신정보다 대 답소모 약함. 직공들의 귀 향절정, 직공의 귀향 에는 닭이 필요없음. 일반 서울 시민가정의 닭고기 소모성 신정보다 약함
3. 10	750	●부천 800원. 세미 740원	●일산지역 출하부진	
2. 14	700	●부천 730원. 대구 800원		●구정물량 완전 소모되지 않고 이월
2. 16	650	●세미 650원	●천안 700원(목포상인)	●대구구정시세 900~ 930 원까지 형성. 서울 물량약 20차량 내려감.
2. 17	620	●세미병아리 다량 출현시 작	●산란노계 630. 종계노 계 700원	
2. 20	580	●부산 630원(일부지역 540 원형성된 것은 구정의 생 산자. 횡포에 대한 울산 상 인들의 보부 결과)	●계속 하락	●2.19. 우수(음력 1.13)
2. 24	550	●세미병아리에 의한 세미 상품 출하다량(kg당 550원)	●세미 620 약세 ●관교지역을 위시한 서 울경기지역 병아리 사것 꾼 출현 ●서울근교(수색)세미 630원	●3.1. 3.1절
3. 6	550			●3.6 경칩
3. 9	540	●안양산본리 2월하순~ 3 월 초순 뉴깃슬만연		
3. 10	500			●소비는 어느정도 되지만 파잉생산
3. 16	480	●대양협생산 3분과위合同 회의(3.14)에서 초생추단 가육계시세 등 논의(비공 식적으로 육계 입추증지 거론됨)	●부천지역 530원 ●480원代 계속됨(원 거 리 일부지역 440원까 지 형성) ●수색지역 세미 420 원	●난가상승세 특란 29.50. 대란 26.50 ●3.15경부터 서울지역 일 부 부화장 병아리 처지는 기미 엮보임

구분 월별	시 세 (원/kg)	상 황 및 분 석	참 고 사 항	비 고
78. 3. 16	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양계인: 잠병아리·초생추 단가 등의 문제 농수산부장관 앞으로 고발혹은 진정서제출 ●3.24경 일부지역 상승으로 천안 520원(남쪽상인) 인천상인 520원 천안군소 부화장 병아리 처집 ●3.26 대양협 전국육계분과위원회의에서 4.1부터 무기한 입추중지결의 	일부지역 썬미 3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교지역 뉴깃슬만연 ●3.19. 인천지역 입추조절 현상 나타남. 날씨 맑음(일) ●3.20경부터 서울지역 병아리 처지기 시작 ●3.26 특란 33원, 대란 30원 봄날씨 완연(3월 대체적으로 날씨 좋음)
4. 1	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대저계우회 긴급회의(4.1): 부산시의 양계장철거계획과 대양협의 입추중지결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500원~550원 ●4.2(일) 비
4. 4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인지역차량시세 530원. 시세상승경향보임. 뉴깃슬만연(안양, 판교, 성남, 일산, 대구 등), 초생추 완전히 처집. 저시세와 뉴깃슬 만연으로 도산양계인 나타남. 	●대구 5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씨 맑음. ●4.5 식목일. 청명 날씨 비바람
4. 6	550			
4.10	530	●상승세 둔화. 원상복귀		●4.8 특란 34원
4.15	520	●썬미 530원까지 상승	●오랫만의 썬미가겨 상승세	
4.20	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썬미 480~500원 ●서울 하향 혹은 보합세, 대구 550원 이하에서 상승 후 보합세 ●사료억제지시(농수산부) 전체 업계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570원 시세 5. 8까지 계속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600원 ●4.21 KAL기 소련불시착 특 사건으로 전세계 소요
4.27	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색지역 썬미 540원 ●일산지역 생산자 야간도주현상 나타남 ●77년 말부터 78년 초까지 신규업자 무더기 출현, 산골짜기마다 하얀 간이 비닐계사 만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의 특징: 서울 근교(부천등)와 원거리 신규업자의 판매가격차이 kg 당 100원 이상 형성
5. 2	450	●중상 500원, 각 사료 회사 사료판매량 감소현상 나타남.	●계속적인 하락세가 5. 3부터 상승으로 방향 돌림(호황을 예상한 과잉 신규업자의 출현과 과잉	
5. 4	490	●중상 530		●5.5 어린이날. 5.6 입하

□ 78年の 養鶏業界 決算과 79年 展望 □

구분 월별	시 세 (원/kg)	상 황 및 분 석	참 고 사 항	비 고
5. 7 5.10	550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일 어린이날은 여러 가지 면으로 닭고기 소비의 기록적 역할을 담당. 금요일이므로 행락인과 만발경부고속케이트차량행렬 3km까지 뻗침 ● 부천 600원 ● 일부지역 최고 700원(중상) 광주 670원 ● 계속적인 가뭄과 더위는 제육소비를 증진 ● 초생추입추증지현상은 3월 하순이후부터 나타났으며, 5월 10일경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병아리는 2월하순~3월초순 출하량으로 매우 많은 양이 생산되었으나 질병과 생산물출하의 자체조정으로 경기가 회복됨. 	<p>생산의 결과로 2.15 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5월 2일까지 무려 2개월 반의 오랜 기간동안 극심한 불황을 자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6소비급신장 1개도 매시장 상인 1일 500수까지 판매경우 나타남.(생산물물 소진됨) ● 5.14 석가탄신일(일)
5.16	670 (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제화로 약간 주춤 서울지역소비 약간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세 5.17경부터 상승(720원-차량대상)
5.18	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랫동안의 단비(서울25mm) 통주국대의원 선거(5.18)
5.20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650원 		
5.25	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 600원, 천안 6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400원(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산지역 뉴깃슬발생
5.29	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600원, 대구 580원 ● 5월말 육계사로구입난으로 덩핑출하경향(육계사로 프리미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350~400(5.30), 부산지역 가뭄으로 인한 2일 급수제로 육계소비 격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희도사의 전국적인 소나기 예보(5.28일) ● 현충일(6.6) ● 6.9 전국에 흠족한 비호 남지역 호우성 비 최고 163mm
6. 6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680원 ● 각사료회사 육계사료생산량 감소현상(판매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570(6.10) ● 광주 520(6.13) 광주 630(6.15) 광주 670(6.16) 광주지역은 뉴깃슬피해로 급락하였다가 물 없으므로 급상승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4부터 영남지역 장마 시장(부산) ● 6.13 금리인상. 각종 물가상승 조치
6.17	620~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보합세(6.17)오 르락 내리락. 인천지역 640~6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6.19경 500원(570원으로 상승되었던 시세가 354mm의 폭우로 다시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6 부산지역 폭우 ● 6.19 목포지역 폭우 ● 6.22 하지(음 5.17)
6.26	600~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720원(수해피해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600원(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서울 폭우 침수지역 多

구분 월별	시 (원/kg)	세	상 황	및 분 석	참 고 사 항	비 고
6. 29	600~630		만수, 질병피해수수 10 만수 추정)	●군납업자 육제대용 노계 군납사건으로 군수사대 구속수사 및 부도추출		●계속 호우(서울지역)
7. 1	650		●부천 680원, 시세상승세		●부산 580원	●장마계속. 특란 29원. 대란 22원
7. 7	680		●부천 730원, 시세상승세 ●7.3경부터 병아리덤핑난무 ●장마로 인한 차광활동부진으로 근교 시세강세, 원거리시세 매우 약세 ●가장 특징적인 인식(부화업자의 7월 병아리판 매위기설과 생산자의 추석뒤 육제업 끝난다는 생각)		●부산 580. 대구 600. 광주 610	●지방침체, 서울양호, 서울지역 장마계속 ●부산지역(양산) 폭염으로 532수 폐사(7.6)
7.10	720				●광주 610(6.12)	●광주지역 도계법 실시에 의한 물량채화로 80일령된 닭 있음.
7.11	750				●부산 620(6.13) 부산 680(6.15) 부산지역 해수육장 개장과 함께상승	
7.15	800		●중상 830원			
7.17	760					●7.17: 조부. 제현질(월)
7.19	750				●광주 810(7.20) 광주 지역 도계와 생계사실상 병행. 해수육장 개장으로 상승. 입추조절 현상多(ND. 수해)	
7.21	720					●특란 30. 대란 23원(회복세) ●장마 끝나고 본격더위시작후 첫 주말(7.22 토)
7.24	700		●천안삼교지역 생산자 과잉 670원		●대구 750(7.28) 부산 780(7.28) 부산 830원까지 일부 상승(7.29)	●폭염 일주일째 계속(7.26) 폭염으로 폐사 多出. 생산효율 저하(전양계업에 영향)
7.30	670		●서울지역 병아리덤핑 난무(7월 위기설 적중)			●7.27 중부
8. 2	730		●중부소비 대단함. 대 닭 없음. 세미시세하락. 중부		●부산 730원(8.3) ●8월초순부터 병아리덤	●7.29 서울 36°C 기록. 각종장 증계. 산란계. 육

□ 78년의 養鷄業界 結算과 79年 展望 □

구분 월별	시 세 (원/kg)	상 황 및 분 석	참 고 사 항	비 고
8. 2	730	소비로 인한 8월초의 시세 상승되기 전까지 서울상품 부산으로 출하 부산시세 730원까지 하락.	평 진정되기 시작	계 등 무더기폐사. 더위, 질병, 사료질저하, 병아리 판매부진 등으로 최악의 상태 - 종계도태속출
8. 6	750	●부천 800원 ●78년의 북경기 저조 차량시세 780~820 짧게끝남 중상시세 820~850	●8월초순 인천지역 양 계인들 인천전국 체전병 아리 입추	●8.3 일기변화 분기점 - 저녁 선선했.
8.10	780			●말북 8.16(음력 7.13)
8.18	740	●중상 760원, 인천 780원		●태풍 칼멘호(8.20) 충남 최고 420mm, 주로 충청, 호 남지방 피해, 39명 사망 실 종 92억 재산피해. 연내대 지역극심으로 군소 종계타 격 예상.
8.21	740		●광주 770, 대구 750, 부산 800	●더위완전 가심. 초·중· 고교 일제개학(8.21) ●8.23 처서(음력 7.20)
8.29	730	●말북뒤 추석까지의 하락 예상과는 반대로 시세 저 속되므로 생산자들 한숨들 립.	●난가호조 특 38원, 대 32원, 중 26원	
9. 1	720	●국회의원 선거의식코 입 추경향 병아리 말립. ●병아리상자 생산업자인 W포장의 견해: 병아리 생 산량이 7월부터 감소되어 8월이후 9월까지의 생산량 은 봄철 피크때에 비하여 약 1/5정도로 예상되며 10 월경부터라야 약간씩 증산 될 것으로 판단함. (9.11의 견해)	●일산지역세미 680	●늦장마 계속됨
9.11	700~720		●난가 매우 호황. 특 41원. 대 36원. 중 31원 소 28원, 경 25원	●9.11부터 날씨 쾌청. 쌀 쌀 본격적인 가을 날씨 ●배추과동 2,000원/포기 (언론. 정부. 소비자 발라) ●추석 9.17
9.16	700~720	●인천 780원 ●수입육류 영향많음(돈육. 양육) ●생산자 출하경향 추석뒤 로 미루지 아니함.		

구분 월별	시 세 (원/kg)	상 황 및 분 석	참 고 사 항	비 고
9. 21	670		●부산 800(9. 23) ●광주 720(9. 26)	●고추파동. 매점매석상인 구축 ●세계사격대회 개최중
9. 27	650	●문산지역 600원 ●여름 혹서로 증체 부진 80일령 사양육계 많이 나 타남.		
9. 30	570			●김성준 WBC 주니어플라 이급 챔피언 쟁취(9. 30) ●국군의 날(10. 1) ●개천절(10. 3)
10. 3	570	●문산지역 쉼미팔립	●쉼미 600원 ●대구 650원	
10. 10	630	●가을날씨 완연		●한글날(10. 9) - 월요일. 연휴 각 교통표 매진
10. 13	640	●부천 700원, 쉼미매우부 족 급일부터 상승세	●돈육상승 640→660원(생체)	●인천전국체전개막(10. 12) 사상최대규모, 6일간 열전
10. 16	670		●부산 700(10. 15)	●10. 17 인천체전종료
10. 18	640	●부평 620원, 부평지역오 히려 약세	●대구 680~700(10. 19)	
10. 23	650~670	●부천최고시세 750원-중 상 ●시세호조	●부평쉼미 720 강세	●일기캐청
10. 25	800	●10. 24부터 급등	●의정부쉼미 750	
10. 26	850	●부르는 것이 값. 생산량 격감과 소비급증 원인	●일산쉼미 900까지 형성	●첫눈(10. 29) 주말 일기 영양 강원도폭설. 대관령 교통 두절
10. 30	820	●소비위축, 물량없음 ●포천 800원, 일산 830원	●쉼미 850원 ●부산 800원	
11. 5	850	●수원지역 950까지 형성		●주말(11. 5. 일) 캐청, 상 추인파만발
11. 10	900 최고시세 1,000/원 kg)	●최근의 시세형성 분류. 대상 900원, 중상 930원, 쉼미 850~900원 극히 일 부지역의 일부생산자 1,000 원에 출하한 예도 있음.	●광주 850원, 대구 880, 부산 900원	●입동(11. 8) ●날씨 계속춥지 아니함 ●고추 1근 10,000원 김장 철 시작. 배추 생산지시세 20원/포기로 폭락. * 78년도 하반기부터 정 부의 금융긴축정책으로 대 기업체 극심한 자금난. (제 세산업 도산) ※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 제정책으로 각종 부동산매 매동결(아파트분양 미달사 태 속출)

□ 78년의 養鷄業界 決算과 79年 展望 □

구분 월별	시 세 (원/kg)	상 황 및 분 석	참 고 사 항	비 고
11.15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없음 ※ 9월의 병아리생산 부진과 10월의 증산 활발치 못해 12월초까지는 물량 부족으로, 그뒤부터 79.1월까지는 대량소비의 성수기로서 육계경기의 대체적인 호황이 예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2 국회의원 선거 ● 12.25 X-Mas

※ 참고 :

1. 시세는 서울지역의 차량대상을 기준으로 함(중상이라는 표현은 오토바이를 수송수단으로 하는 중간상인을 말함)

2. 차량대상은 원거리 지역, 오토바이 중상은 서울근교를 주축적인 출하 대상으로 거래함.

3. 자료는 필자가 기록 유지하는 자료에 의함

78년도의 가장 낮은 시세는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사이에 때때로 나타났던 kg당 440원(혹은 400~430원 : 원거리 신규업자)이었다.

77년도의 최저시세도 3월중순(10월 중순에도 있었음)에 나타났었지만 77년도의 최저 460원~480원대에 비하면 모든 원가 구성요인이 상승한 1년뒤의 78년도 440원은 비참한 하락시세이었다. 77년도의 3월 불황요인은 변덕스런 날씨와 더불어 사회경제심리불안에 의한 소비침체가 원인이었지만 올해 3월~4월의 불경기는 철저한 "생산과잉"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었다. 올해의 최고가격은 예상과는 정반대로 하반기 11월에 형성된 900원/kg으로 중상에 의한 거래는 930원. 일부지역에서는 차량대상도 950~960원까지 출하하였고 우리나라 육계역사상 최고 기록인 1,050원/kg까지 오토바이 중상에 의하여 거래된 실적을 남겼다. 77년도의 최고 시세는

역시 삼복중인 8월 중순의 850원이었는데, 77년도는 800원대, 78년도는 900원대로서 최고가격을 형성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구정이 끝난 뒤부터 하락하여 3월과 4월이 침체되었고 5월 5일 어린이 날이 소비촉진의 기폭제가 되고, 오랫동안의 불경기로 자체 조절된 결과 가격이 상승된 경향은 77년도와 올해가 같은 추세를 나타냈었지만, 올해는 북경기가 생각 만큼 좋지 아니하였고 반면에 하반기의 경기가 의외로 호황을 형성했다.

78년도의 육용업계는 여러가지 면으로 가장 얼룩진 한해가 될 것이다. 호황을 예상한 신규업자의 범람, 병아리파동과 잡병아리의 엄청난파 잉생산-이로 인한 진정과 고발사태, 결국 생산과잉현상으로도산업자 속출, 4월과 5월의 육계사료 파동, 더위와 홍수로 인한 피해, 질병의 만연, 입추중지결의 등, 이와 같은 제반사항이 바로 올해의 육용업계 얼굴이었다.

년초부터 부화업계는 병아리 판매에 대한 7월 위기설이 떠돌았고 생산자는 추석이 지난 다음은 육용업계가 아주 소멸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결과적으로 11월의 대호황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생산자는 닭이 없으므로 꿀먹은 벼어리행세밖에 할 수가 없다.

78년도-올해의 교훈은 "생산효율제고"

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켜주었다.

3. 79년도 전망

(1) 수요추정

최근 발표된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78년도 국민 1인당 계육소비량이 2.4kg으로 전체 88,800톤(인구 3,700만 기준)으로 되어 있고, 79년도는 1인당 2.8kg으로 전체 105,300톤(인구 약 37,500만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 닭고기의 정육율을 50%로 간주하고 전체 소모되는 닭의 평균 생체중량을 1.5kg으로 추정할 때 78년도는 1억 1,800만수, 79년도는 약 1억 4천만수의 닭이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정육율 40%로 보고, 삼계탕이나 썬미용 상품에 더욱 중점을 두어 닭의 평균 체중을 1.4kg으로 생각한다면 79년도는 약 1억 9천만수의 총소모수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의 산출평가를 잡는다면 약 1억 6천 5백만수가 되고, 산란노계 약 2,000만수, 일반농가 약 1,000만수, 합계 3,000만수를 공제하면 약 1억 3천 5백만수를 육용계로서 충당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2) 종계분양현황

78년도의 종계분양수수를 추적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각 원종농장별로 추정합산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대한양계협회에서 집계한 수수를 적용할 수 있다. 대한양계협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최근 매우 신빙성있게 조사되는 경향이므로 거의 정확한 수수가 산출되고 있다. 우선 원종농장별 추정수수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원종농장별 종계분양 추정

한협 603호(한협)	약 50만수
하이브로(천호)	약 25만수
아나크(한일)	약 35만수
기타(하바드, 필퀴, SB)	약 25만수
수입종계	약 15만수
합계	약 150만수

농수산부에서 수입인가된 종계는 77년부터 모두 16만수로서 77년도분과 78년도 1차분까지 13만수는 모두 78년도에 수입되었거나 될 예정이고, 78년도 2차분 3만수도 거의 년내수입된다고 가정했을때 올해의 총 수입종계수수를 15만수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에서 조사된 종계분양수수는 표 2와 같다.

표 2. 77-78 육용종계 생산현황(대한양계협회)

월별	77년도	78년도
1	10,118	99,236
2	33,010	171,272
3	74,645	213,415
4	111,170	215,744
5	108,909	214,716
6	94,183	141,040
7	93,710	92,960
8	77,350	77,280
9	72,680	67,080
10	51,185	55,140
11	32,820	(약 5만수)
12	42,050	(약 5만수)
계	801,830수	(약 145만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본 조사표에 따른 78년도 종계분양수수에 약 10%~15% 정도 가산한다면 거의 정확할 것 이라고

표 3. 77-78 육계사로 생산현황(단위 M/T)

월별	77년도	78년도
1	10,042	24,600
2	12,574	29,663
3	17,670	42,115
4	22,035	43,042
5	25,651	43,914
6	24,962	44,316
7	25,983	40,004
8	23,463	37,276
9	18,583	35,266
10	18,472	(약 3만톤)
11	18,057	(약 3만톤)
12	23,069	(약 4만톤)
계	240,561	(약 44만톤)

※ 참고 1. 77년도 총배합사로 생산실적 190만톤, 양계사로 115만톤
 2. 78년도 총배합사로 생산추정 약 250만톤, 양계사로 약 160만톤

한다. 그렇다면 올해의 종계수수는 약 160만수 정도가 분양되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참고로 77~78년도 육계사로 월별 생산실적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2에서 77년도의 종계분양수수 80만수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작년말까지 년도별 육용종계분양수수를 추정할 때, 75년도 33만수, 76년도 47만수, 77년도 55만수로 예측하였지만 협회의 실제조사에서 77년도분이 80만수로 나타났다. 또한 77년도의 80만수와 올해의 160만수는 무려 2배의 증가를 나타내고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계 1수당 100수씩의 실용추를 생산한다고 할 때 160만수는 79년도에 약 1억 6천만수의 병아리를 생산할 것이고, 이는

앞의 수요추정수수 1억 6천 5백만수와 계산상으로는 딱 맞아 떨어지므로 일단 적정수량의 종계가 분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두배가 증가된 160만수는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은 인상이 짙다. 여기에 만약 잡병아리가 과잉 생산된다면 더욱 전망이 불투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육계소비증가의 속도를 고려할 때 라면 78년도보다 79년도가 두배이상 신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C 부화장의 P 상무는 소비증가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즉 낮은 소득의 영세민이 "1"을 먹다가 소득이 높아 집에 따라 "10"을 먹을 수는 있지만, "10"을 먹던 중산층이 똑같은 10배인 "100"을 먹을 수는 없으며 겨우 증가한다고해야 "12" 혹은 "20"정도밖에는 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육류소비실장율도 지금까지는 "1"에서 "10"으로 뛰었지만 이제는 "10"에서 "12"정도로 증가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예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설득력있는 이론전개이다.

그러나 79년도를 낙관적으로 전망 하는 견해는 78년도의 종계 150~160만수는 결코 많은 수량이 아니며, 설혹 과잉분양이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질병만연은 전체종계의 약 20~30%까지 폐사 혹은 능력저하를 시켰으므로 실제적인 수량은 100만~120만수 정도의 생산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한 숫자가 아니더라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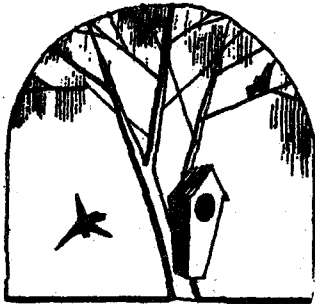
4. 결 론

78년-올해의 교훈은 매우 값진 것이다. 3~4월의 가장 저시세속에서도 동두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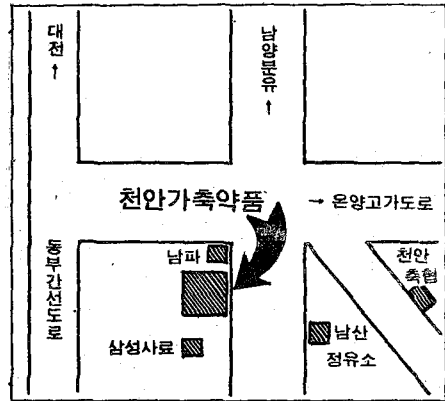
Y 씨, 법원리의 P 씨 등은 생산효율의 극대화로 원가이하로 출하치 아니했으며 순탄하게 사업을 운용했다. 반면에 투기적인 경향으로 사업을 추진한(특히 신규영세업자) 생산자들은 도산과 함께 쓰라린 상처를 입었었다. 소비의 경향은 계절적 편중에서 차츰 년중 보편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78년도에서 느낄수 있었던 깨달음 중의 하나이다.

내년-79년도에에도 많은 난관이 있다. 수입육류의 영향, 특히 질병의 만연 예상,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생산성 저하, 79. 2월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시행 등이 경기의 예측을 불허케 하고 있다. 다만 필자가 분명히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입추의 기준을 방역과 연관된 생산효율제고에 입각하여 실시해야 하며, 기술집약적인 최대의 정밀관리로서 생산효율을 높일 것이며, 정상적이며 꾸준한 사업계획에 의거 무리없이 경영해야 할 것이라는 사항이다. 이렇게 할 때 생산자는 분명히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9년도는 투명하지도 불투명하지도 않다. 방역과 정밀관리에 의한 생산효율 향상과 합리적 경영이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관건이다.



천안가축약품상사가 드리는 모든 혜택을 값지게 활용하세요



- 취급종목
- 양계및 대·종 동물약품
- 각종 백신 첨가제 소독제
- 영양제·치료제
- 각종기구·사료통·자동급수기
- 자동주사기·타입스원저
- 병아리 분양알선
- 질병상담 및 왕진

천안가축약품

천안시 원성동 600-12
TEL. 5989

수의사 노 대 환